

경북형 새돌봄으로 '온종일 완전 돌봄' 완성

경북도·교육청 돌봄 전 분야 협업
부모 조기 퇴근 기업과 협약 체결
24시 어린이집, 아픈 아이 긴급돌봄

저출생과 전염병을 선포한 경북도가 기존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완전히 새로 고치겠다고 나섰다. 핵심은 분절되고 흩어진 '틈새 돌봄'에서 연결되고 융합된 '완전 돌봄'으로 패러다임을 바꾼다.

경북도는 올해부터 가정과 정부(국가, 지자체), 사회 공동체가 함께 돌보는 '온종일 완전 돌봄'을 시행한다.

26일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도 교육감, 이동시 안동상공회의소 회장, 고병헌 경북경영자총협회장, 윤태열 가축전파예방실천민관협의회대표, 차호철 가톨릭상지대학교 총장, 김상동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형 새돌봄 모델인 '온종일 완전 돌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7개 기관은 '온종일 완전 돌봄'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협력 및 기업 환경 조성, 저출생 극복 공감확산을 위한 홍보 및 인식 개선, K-저출생 극복 모델 구축 및

전국 확산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온종일 완전 돌봄은 늘봄학교의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돌봄 제공을 위한 '경북형 학교 늘봄' 협업 운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에게 아이 돌봄 시간을 지원하는 '조기 퇴근 돌봄' △24시 어린이집, 24시 응급처치 편의점 등 '심야 돌봄' 기능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교육부(교육청)가 주관하는 '늘봄학교' 운영에 경북도가 적극 참여해 안정적인 인력·공간·프로그램·이동지원·간식 등을 제공하고 전 분야에서 협업한다.

교내에서 이뤄지는 늘봄학교의 수준 높은 운영을 위해,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더해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질 안전 인력 배치와 양질의 친환경 간식 공급 등을 지원한다.

도는 지역 돌봄 기관과 연계해 늘봄학교 초과 수요에 선제 대응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거점형 돌봄센터를 구축한다.

시를 활용한 거점·순환 버스 운행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고, 출산·육아·건강·교육·병원·주거 정보 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돌봄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부모들이 편리하게 돌봄을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최근 불거진 '늘봄학교'에 대한 학교 측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학부모, 아이 등 모두가 만족하는 늘봄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초등학교 저학년(초1~2)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도 지원한다. 아이가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돌봄은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도는 현재 육아기 단축 근무제도가 있으나 현장에서는 고용주, 근로자 모두의 부담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진단하고 도내 소재 중소기업들에 '육아기 단축 근무' 동참을 요청한다.

아울러,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육아기 단축 근무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운전자금 이차 지원, 대출 우대, 세제 지원, 환경개선사업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근로자에게는 정부의 단축 근무 지원금에 더해, 미지급되는 손실 구간에 대해서도 보전 할 방침이다.

노사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켜서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제도가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임금 보전 구간과 금액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예산 추계 분석 등을 통해 최적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간과 같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부모들을 위해 24시 어린이집, 24시 응급처치 편의점 등 촘촘한 사회적·공적 돌봄 공동체망을 확대 구축한다.

먼저, 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와 '시간제 보육 지원'을 강화해 연간 2,500명으로 돌보미를 확대 양성하고, '24시 어린이집' 및 '아픈 아이 긴급 돌봄센터'를 3개 시군에서 전 시·군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지역 대학과 협업체(가칭)영아교육과를 신설, 돌봄 인력 등 인재 양성에도 힘쓴다.

도내 119안전센터로 아이 돌봄터로 연중 개방해 아이들을 돌보며, 도내 면 단위의 약국·편의점 영업 종료 시 응급처치와 해열제, 감기약 등 상비약이 필요한 부모를 위해 '도내 구석구석 24시 응급처치 편의점'도 운영한다.

이와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교육청, 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대학, 시민

사회 등과 협력해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온종일 완전 돌봄 모델을 경북에서 완성해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정부에서도 부처별로 흩어진 돌봄 기능을 통합하고 현장에서 저출생 극복을 가로막는 규제도 적극 개선하는 등 국민 체감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소중한 학생들의 행복한 삶은 학교와 지역사회 등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더해질 때 가능하다. 경북형 온종일 완전돌봄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과 돌봄의 공동책임을 강화하고, 우리 경북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질 높은 에듀케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시 안동상공회의소 회장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부모들이 조기 퇴근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도내 기업부터 육아기 단축 근무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북도는 청년, 결혼, 취업, 육아 등 부담을 지우는 각종 사회적 관행 해소 등 저출생 극복을 '제2새마을 국민 운동'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용 기자



단체장 일정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27일 오전 9시 교육청 행복관에서 유·초·중·특수 신규임용 교사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27일 오전 11시 달성문화원에서 열리는 '달성문화원 제39차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TK신공항철도 안동 연장 추진한다

GTX급으로 경북 북부권 연결
선로 개량 등 국토부 건의 방침

대구에서 TK신공항을 거쳐 의성을 잇는 대구경북 광역철도(이하 '신공항철도')의 안동 연장이 추진된다.

대구시는 신공항 철도를 중앙선과 연계해 안동으로 연결하는 신공항철도 안동 연장사업 추진한다. 신공항철도가 안동까지 연결되면 안동 등 경북 북부권에서 GTX급으로 신공항에 접근하는 철도 교통망이 마련된다.

'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신공항철도는 GTX급 급행철도(최고속도 180km)로 대구에서 신공항을 경유,

의성을 연결하는 철도이다.

신공항철도는 의성에서 중앙선으로 연결되며, 중앙선은 현재 안동-영천 간 복선 화가량로 단계(25년 준공)에 있다.

따라서 신공항철도가 건설되면 신공항철도에서 중앙선을 거쳐 안동으로 연결되는 기본적인 선로가 마련되게 된다.

여기에 일부 역사와 선로 개량, 차량 증편 등이 갖춰지면 대구-의성 간 약 64km에 더해 의성-안동 간 25km 연장 노선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신공항철도가 안동으로 연장되면 GTX급 급행열차로 이동할 경우 안동에서 약 20분 이내에 신공항에 편리하게 접근하게 된다. 신공항철도와 중앙선 연계가 북쪽으로

더 확장되면 경북 북부와 충북 지역의 여객과 물류까지 신공항으로 유치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대구시는 이와 같은 안동 연장사업 세부 방안을 경북도, 안동시와 조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공항 개항에 맞춰 안동 연장선까지 개통할 수 있도록 향후 신공항철도 건설 사업과 병행해 안동 연장선을 반영하는 방안을 주관부처인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안동과 경북 북부에서 TK신공항을 잇는 광역급행철도인 신공항철도 안동 연장선을 공항 개항에 맞춰 추진하겠다"며 "경부선 중앙선을 연결하고 달빛철도를 연계하는 신공항철도를 통해 가대남부경제권을 구축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환자 곁 지켜달라" 경북지사, 의료계에 호소문

응급실과 수술실 한계 상황
의료진의 피로도 급상승 논의
의료공백 방지 호소문 발표

이철우(사진) 경북지사가 26일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 "도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료계의 필수 의료 정책 추진 반대 결의 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과 수술실의 한계 상황과 환

자를 지키는 의료진의 피로도도 급상승하고 있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호소문'을 내고 "고령인구가 많아 의료 수요가 높은 경북이 이번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발생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큰 상황"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를 환자 곁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경북도는 지난 21일 김천의료원을 시작으로 포항·안동 의료원의 평일 2시간 및 주말·공휴일 연장근무를 하는 한편 도내 전공의가 근무하는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실직장 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의견수렴 등 비상 진료체계 유지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조여은 기자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탐나는 신문이 있습니다
깜깜한 세상 '새벽'을 여는 '첫' 신문

대구광역일보 는 독자의 마음까지 생각합니다.

광고·구독문의 053-253-0000



성주소방서, 아파트 화재 대피행동요령 홍보 실시

성주소방서는 최근 아파트 등 주택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것을 강조하면서 아파트 화재 시 피난행동요령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아파트는 고층 건물의 특성상 즉각적인 피난이 어렵고 수면이나 음주, 노약자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다른 용도의 시설보다 화재 위험성이 높고 대피 안전성도 취약하다.

이에 성주소방서는 소방청에서 마련한 '아파트 화재 피난매뉴얼'을 홍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중점 홍보사항은 △우리 집 피난계획 세우기 캠페인 실시 △피난안전 홍보물 부착 △대피방법 안내 △스전단지 홍보 등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 만들기로 도민안전 지킨다

경북 명예쓰담지도원 328명 위촉 영농폐기물 수거·산불예방 활동

경북도는 26일 구미 선산청소수련관에서 자연보호중앙연맹 경북협의회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깨끗하고 안전한 우리마을 만들기'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깨끗하고 안전한 우리마을 만들기'는 민관 합동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마을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불철 영농폐기물과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에 따른 산불예방으로 안전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는 운동이다.

경북도는 농지와 산지가 많은 지역으로 봄철 논밭두렁 영농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북도의 미세먼지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의 불법소각행위는 미세먼지 발생 요인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산불원인 중 논·밭두렁, 영농폐기물 소각이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올해 5월까지 미세먼지 및 산불예방 총력 대응을 위해 도와 시군 그리고 자연보호중앙연맹 경상북도협의회와 합동으로 역할에 따라 깨끗하고 안전한 우리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와 시군은 깨끗하고 안전한 우리마을 만들

기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과 산림 인접 주거지 및 농경지 중심 불법소각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산림분야 불법소각과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명예산림감시단 400명을 운영한다.

자연보호중앙연맹 경북협의회에서는 5월까지 매주 수요일을 쓰담데일로 지정하여 영농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홍보하고 실천을 통해 최근 쓰레기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과 산불예방에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경북도는 자연보호운동의 발상지인 구미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우리마을 만들기의 주역이 될 명예쓰담지도원 328명을 위촉하였다.

우리마을 명예쓰담지도원의 임무는 마을 영농부산물인 영농폐기물을 공동집합장으로 적정하게 수거되도록 하고, 폐기물 종류별 배출방법 안내와 불법소각 금지에 대한 주민 홍보 등의 활동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환경문제는 이제 인류생존의 문제가 되었기에 우리 모두가 더 늦기 전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연환경보호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깨끗하고 안전한 우리마을 만들기 사업이 경북에서 시작되어 나갈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용 기자



경북도, 90억 규모 관광진흥기금 지원사업 실시

0,8% 금리로 최대 20억원 용자 보조사업은 최대 5000만원까지

경북도는 지역 관광업계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지원사업은 관광숙박업 등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한 용자사업과 지역 특화 관광상품 개발 등을 위한 보조사업 2개 사업으로 진행된다. 지원 규모는 총 90억원으로 용자사업 50억원, 보조사업 40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기금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와 관광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용자사업의 경우 0.8%라는 파격적인 금리

로 관광숙박업 등 관광 인프라의 신축, 개보수 등에 최대 20억 원을 지원하며, 상환조건은 5년 거치 7년 원금분할상환이다.

보조사업은 지역 특화 관광상품 개발, 관광 홍보, 관광 종사자 교육 등에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20%는 자부담을 해야 한다. 특히, 저출생 극복,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국가적 현안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광상품을 제안할 경우 심사시 가점을 부여한다.

신청은 공고일 기준 도내 주사무소를 둔 관광진흥법상 관광업체 종사자, 관광이 주목적인 법인 및 단체 등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3월 15일까지며, 용자사업의 경우 시군 관광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보조사업은 전용 홈페이지(gctogg.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

는 4월 중에 확정할 계획이다.

각 사업의 신청요건, 제출서류, 유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 홈페이지와 도내 시군 홈페이지, 경북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고품질·고급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관광업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기 바란다"며, "체류형 관광과 같은 변화된 관광 트렌드를 감안해 지역 관광 인프라 개선과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에 집중해 누구나 찾고 싶은 매력 있는 경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관광진흥기금은 2019년부터 도와 시군이 함께 매년 100억원씩 출연해 10년간 총 1000억 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까지 577억 원을 조성해 지역 446개 업체에 약 338억 원을 지원 했다.

김성용 기자

경북 소규모 중학교 공동 교육과정 운영

43개교 시범사업 내년 확대 계획

경북교육청은 26일 청송군에 있는 소노벨 청송 대연회장에서 학교 연합 교육과정 공동 운영 43교 업무담당 교사 86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만들어가요~따로 또 같이' 워크숍을 개최했다.

'따로 또 같이' 소규모중학교 연합 교육과정 공동 운영은 전교생이 40명 이하인 소규모중학교 2~4개교가 연합하여 학기별 2회 이상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유 학기 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워크숍은 소규모학교 교육혁신 사업의 성공을 위해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학교 간 의사소

통을 통해 공동 운영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게임피케이션을 활용한 교수법 특강 △연합 자율진로 활동 사례 △연합 프로젝트 수업 사례 등에 대한 강의와 안내 진행됐다.

소규모중학교 연합 교육과정 공동 운영 사업은 도내 전체 소규모중학교 중 50%인 43개교가 참여하여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는 교육과정 공동 운영으로 소규모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경북교육청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올해는 43개교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2025년에는 전체 소규모중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김성용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 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8(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편집국장 김현석 | 부사장 조여은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 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예부 053-253-0065 부서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 외파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북경찰청 경찰특공대 신축사업 본격 추진

2026년까지 특수훈련시설 조성

경북경찰청 경찰특공대의 신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신축사업은 2026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신축부지 면적은 24만 944㎡, 연면적은 6621㎡에 달한다. 새로운 청사는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약 202억원

으로 그 중 공사비는 144억원으로 예상된다.

경북경찰청 경찰특공대는 현재 임시청사만 신축했고, 건물종합훈련장·사격장·탐지견사 등의 실전훈련에 필요한 기본 훈련시설이 전무해, 대구에 있는 경찰특공대의 레펠 및 근접전투 훈련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연경장 내에 임시로 만든 사격장에서 내부소방 실탄 사격훈련을 하고 있

어 사건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신축사업의 첫발을 내디뎠고, 이후 2023년 10월에 설계공모를 진행해 같은 해 12월 설계계약을 최종 확정했다. 이렇게 경북경찰청 경찰특공대의 신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특수훈련시설을 갖춘 복합훈련 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특공대가 최선을 훈련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축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에서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잡다! 혁신의 에너지 ENERGY 성장의 시너지 SYNERGY 경북의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산업단지.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단,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상주 일반산업단지, 경산4 일반산업단지, 고아제2 농공단지. 주요 입주업종: 자동차부품, 선박부품, 기계부품, 철강부품, 에너지/IT, 화학 등.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 / 분양가격, 분양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포항시청, 상주시청, 한국산업단지공단, 구미시청.



경산 동부동 부영6차 경로당 100세 어르신 생신잔치

경산 동부동 부영6차 경로당은 지난 24일, 올해 백수를 맞이하신 손봉은 어르신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마을 잔치를 열고 주민들과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가족과 노인회원, 주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손봉은 어르신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많은 축하인사를 전했다.

문무태 회장은 "노인회원으로 오랜 기간 정을 쌓아오면 지냈는데 이렇게 백수를 맞이하시고 생신상을 대접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며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고 존경받는 큰 어른으로 계셔주시길 바란다"고 축하인사를 했다.

신경은 기자

대구시, 수출시장 다변화 적극 모색...中 의존도 완화

중동·CIS 빅바이어 수출상담회 전략적 무역사절단 4월부터 파견 이차전지 등 신산업 전시회 지원

대구시는 중국 수출입 의존도 완화와 지역 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수출 지원책을 펼쳐 나간다.

중동, CIS 등 중국 이외 유망전망시장 빅바이어를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실시하고, 전략적으로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한편, 수출기업의 각종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한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핵심원료 수출통제 및 규제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의 對中 무역현황(2023년 기준)을 살펴보면 지난해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5.2%로 전국 19.7% 대비 15.5%p 높고, 수입 비중 또한 60.8%로 전국 22.2%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산업의 중국 수출입 의존도를 완화하고 지역 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구시는 첫째, 중국 및 유망 전략시장 빅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실시하고, 둘째, 국가별·주력 품목별 전략적 무역 사절단을 파견하며, 셋째, 무역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신산업 전시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넷째, 수출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를 지원하며, 다

섯째, 수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수출통제 및 규제 관련 실시간 모니터링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수출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먼저, 글로벌 시장과 수출 기업의 주력상품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중동, CIS 등 유망전망시장의 빅바이어들을 전략적으로 초청·매칭시키는 수출 상담회(3월, 11월)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정확하고 철저한 시장성 평가와 기존 수출 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수출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품목을 선정해 전략적 무역 사절단을 4월부터 총 5회에 걸쳐 파견한다.

이차전지 소재·장비·부품 등 연관 산업의 납품처 다변화도 모색한다. 미·주·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인터배터리 유럽

2024'(2024.6.19~6.21.)와 '북미 라스베가스 코스모포폴(2024.7.23~7.25)' 등 지역 수출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신산업 분야의 차세대 전시회 참가를 지원해 신시장 개척을 돕는다.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해 경험이나 비용 부족으로 망설이는 기업을 위해서는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역의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전시회 참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의 수출 기업이 자사 품목에 가장 적합한 해외전시회를 직접 찾아 참가한 후 부스 임대료 및 장차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글로벌 신시장 개척에 도전하고 싶은 지역 기업들은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대구시 수출

지원시스템(<https://trade.daegu.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지역의 수출지원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핵심원료 수출통제와 규제 등 대외 무역 환경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안중근 대구시 경제국장은 "신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로 對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고, 수출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시스템화해서 안정된 무역환경에서 지역 기업들의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군위에도 찾아가는 이동세탁차량 '씽씽'

경북사회복지모금회 차량 전달

(사)군위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2일 군위군청 전정에서 '찾아가는 이동세탁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진열 군위군수, 서대식 군의회 부의장 및 의원, 정동의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황미례 사랑의 열매 군위군나눔봉사단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동세탁차량은 '2023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동세탁차량지원배분사업 공모'를 통해 군위군자원봉사센터가 선정되었으며 3.5톤 트럭에 25kg 용적의 세탁기 4대로 구성된 특수차량으로 제작·구입했다.

이동세탁차량은 군위군자원봉사센터의 '세상

을 잇는 빨래방' 사업의 일환으로 독거노인과 취약가구 등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하기 어려운 대형이불세탁서비스를 지원하며 주 3~4회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이동세탁차량 운영을 통해 민·관을 연결하는 지역사회 플랫폼의 역할을 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사회적 저지점 해소와 돌봄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보태며 재난·재해 발생 시 재난현장복구를 위한 지원 장비로도 사용이 가능해 높은 활용도가 기대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고령화 지수가 높은 지역 인만큼 어르신들과 취약가구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이동세탁차량을 지원해주신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달성군,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설치보조금

한 대당 60만원 160가구 대상

대구시 달성군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와 취약계층이다. 특히 올해는 저소득층 범위를 확대해 기본중위 소득 70% 이하이면서 다자녀(2자녀 이상)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은 한 대당 60만원으로, 160가구를 대상으로 선착순 신청을 받아 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일러 설치(교체)를 원하는 주민은 달성군 환경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코스퀘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달성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친환경 보일러는 표시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열효율이 92% 이상으로 노후 보일러 대비 약 12% 정도 높아 연료비 절감에 도움을 주며, 겨울철 초미세먼지(PM-2.5)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은 연간 87%, 일산화탄소는 70.5%, 이산화탄소는 19% 정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조여은 기자

대구시, 무료 시민생활상담실 운영 확대 시행

법률·세무 등 수요 많은 분야부터 내달부터 주 5회→8회로 늘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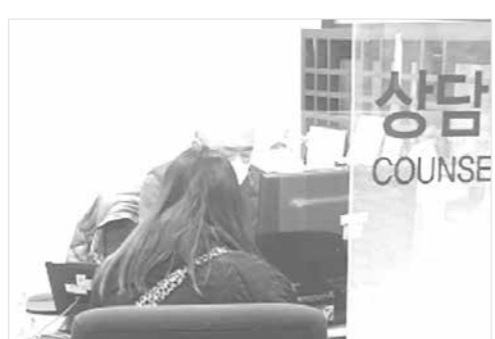
대구시는 일상생활 속 법률, 세무 등 전문 분야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무료 시민생활상담실을 올해 3월부터 주 5회에서 8회로 확대 시행한다.

상담실 운영 확대는 법률, 세무 등 상담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상담실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법률(월·수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 20분) △세무(화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노무(목요일 오후 1시 20분~3시 20분) △법무(금요일 오후 1시 20분~3시 20분) 분야에 대해 실시하며, 1명당 20분가량 상담할 수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대구시민은 사전 전화(☎ 053-803-2892) 또는 인터넷(두드림소→시민생활상담)으로 방문, 전화, 화상상담 중 상담방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상담위원은 대구지방변호사회·세무사회, 한국



공인노무사회대구경북지회, 대구경북법무사회 소속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로 구성된 자발적 재능기부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사·형사, 세무 등 생활법률 전반에 걸쳐 도움을 줄 예정이다.

1993년 시작한 무료 시민생활상담실은 지난해 1,128명이 이용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 분야로는 법률 536건, 세무 256건, 노무 143건, 법무 193건으로 나타났다.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무료 시민생활상담실 운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경북도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

1270명에게 포인트 100만원 지급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 신청

경북도는 26일부터 도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 1270명에게 1인당 연간 10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해 경북 청년들의 복지 향상에 나선다.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복지 여건 등으로 초기 이직률이 높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복지 향상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북도가 2017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7년간 122억원의 예산으로 1만

1356명을 지원했다.

올해 모집 인원은 1270명으로, 2022년 6월 1일 이후 도내 중소기업에 신규 입사해 6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사업공고일 기준 경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19~39세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26일부터 3월 15일 14시까지 사업참여자를 모집하며, 경북청년 홈페이지 청년e플립(www.gbyouth.co.kr) 및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www.gbwor.kr)에서 개별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간 100만 원의 포인트를 2회에 걸쳐 분할 지급(최초 선정 + 6개월 근무) 받는다.

포인트 지급 대상자는 가까운 제후은행(농협, 대구은행)을 방문해 행복카드를 신청·발급받아

온·오프라인으로 건강관리(종합건강검진, 헬스장 이용), 문화여가활동(여행, 공연관람), 자기계발(학원 수강, 도서 구입), 가족친화(육아용품, 생활용품)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최근 '복리후생 개선'이 중소기업 일자리 선호도 개선을 위한 우선적 사항으로 나타나고, 청년들이 대기업과 같은 복지제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에 따라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인력난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이 건강, 교육, 문화생활 등 실생활 속에서 필요한 분야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복지혜택을 한층 강화시켜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에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안심역 열차 운행시간 조정

대구교통공사는 1호선 하양 연장(안심-하양) 개통과 관련해 오는 3월 12일부터 안심역에서 하양 연장 구간 신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안심역 출발 열차 운행시간과 승차 위치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공사 기간은 3월 12일부터 4월 4일까지 24일간이다.

이 기간동안 열차 운행 횟수는 평상시와 동일하나, 안심역에서 출발하는 첫 열차와 마지막 열차를 제외하더라도 열차 기준보다 3분 일찍 출발한다.

이후 다음 역인 각안역에서 3분 동안 정차한 후 기존 시간표대로 운행된다.

황태용 기자

발전소 주변지역 전기요금 더 싸진다

한울본부 월 1만7690원 지원



으로 확대한다.

전기요금보조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의 주택용 및 산업용 전력 소비자에게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한울본부는 2024년 전기요금보조사업 예산 총 39억원 범위 내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은 매월 1만 7690원 이내,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kW당 2900원 이내(최대 200kWh)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세용 본부장은 "고급리·고급가치 경영으로 평가가 제쳐진 시기에 전기요금 지원금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전소주변지역 전기요금보조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한울본부 홈페이지(www.khnp.co.kr/hanul/main.office) 지원사업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주지역 기업 인력수요 사전 조사 진행

경주시가 지역 기업체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맞춤형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인력수요 사전 조사를 3월 6일까지 실시한다. 경주시취업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이번 수

요조사는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20여 곳 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조사 항목은 사업체 현황, 신규인력 채용계획 및 교육훈련, 기업 고용현황 등의 내용으로 구성

됐다. 특히 이번 조사는 신중년인 45세 이상 인력채용 여부, 외국인 근로자 채용 의사, 기업의 신규 채용 애로사항에 대해 중점을 두고 이뤄진다. 조사는 이메일, 팩스,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펼쳐진다.

경주시, 황성공원 도시바람길숲 사업 순항

사유지 지장물 철거 내달 마무리 4월부터 수목 식재 숲 복원 나서

경주시는 황성공원 내 무분별하게 조성된 건축물, 경작지 등 지장물 철거가 다음달까지 완료되면서 '황성공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이 순항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황성공원 내 공원미조성 부지(사유

지, 도로 등) 15만 8954㎡에 수목을 식재해 원형 그대로의 모습인 숲으로 복원하는 게 핵심이다. 사업비는 100억원(군특 50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35억원)이 투입된다. 앞서 시는 황성공원 내 사유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2019년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맺고 사유지 매입에 나선 바 있다. 현재 공원 부지 89만 5373㎡ 중 사유지 9만 1785㎡를 매입하고 지장물 철거가 막바지 단계다.

2단계로 나뉘어 실시된 철거는 먼저 1단계로 국립중학교 맞은편 2만 3500여㎡ 부지와 한빛아동병원 맞은편 3만 6000여㎡ 부지 내 지장물이 정비됐고, 이어 2단계로 동천 푸르지오 맞은편 4만 7000여㎡ 부지는 다음달 철거가 모두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수목 식재 통해 숲 복원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사업 완공은 내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황성공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도심 내·외곽 숲에서 생성된 양질의 공기를 주민생활 공간으로 공급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황성공원을 뉴욕의 센트럴파크 못지않은 도심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 2021년 8월 황성공원을 근린공원과 문화공원으로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30 경주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왔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의견 및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경북도에 변경신청을 한 상태며, 경북도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2030 경주 공원녹지기본계획'은 황성공원 부지 89만 5373㎡ 중 57만 9976㎡는 근린공원으로 용도를 유지해 도심숲으로 보존한다는 것과 나머지 31만 5397㎡는 문화공원으로 변경해 시민편의공간이 밀집된 주제공원으로 정비한다는 것이 골자다.



위덕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선정 쾌거

취업 지원·일자리 발굴 등 6년간 총 18억원 예산 지원

경주시는 위덕대학교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은 재학생, 졸업생 및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진로 취업 지원과 일자리 발굴, 통합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과 체계적인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위덕대학교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연간 3억원, 총 18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대학 내 각종 취업 지원 인프라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해 취업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자기소개서·면접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 대학-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년일 경험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청년고용 정책 홍보·안내는 물론 참여 지원 역할도 수행한다. 향후 시는 고용노동부, 경북도, 위덕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오는 3월부터 청년들에게 진로·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위덕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18년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에 선정돼 매년 연차평가에서 5회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1년 연장이라는 인센티브까지 받아 지난해까지 6년간 사업을 이어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위덕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6년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진로 설계와 취업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실천협의회 15주년 기념식·전국대회 개최

사단법인 환경운동실천협의회는 지난 24일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본부 및 전국 16개 지부, 39개 지회 임원과 내외빈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5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행사는 지난해 사업 결과보고, 유공자 표창, 위촉장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실천하는 환경운동'이라는 슬로건으로 2009년 창립한 환경운동실천협의회는 본부가 경주

에 위치하고 있으며, 더 맑고 푸른 쾌적한 환경과 범지구적 기후 변화에 초석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환경운동실천협의회는 지난해 환경의 날 기념 환경에너지 동요연대대회, 전국청소년 환경지킴이단 발대식 및 환경에너지교육캠프, 환경정화활동, 환경실감 생태체험 교육, 전국청소년 환경사랑 그림공모전 개최를 통해 환경보

전활동을 전개했다. 김한규 총재는 "2024년은 법인 창립 15주년을 맞아 지난 실적을 발판으로 다음을 바라보는 매우 중요한 해라는 점을 인식하고 환경운동가들의 활동으로 저탄소 녹색환경 실천을 선도할 것"이라며 "환경운동의 시야를 넓혀 참여가 쉽고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단체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인체 유해' 슬레이트 철거...올해 364동 처리 지원

경주시가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로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석면슬레이트는 대표적 석면 함유 건축자재로 1960~1970년대 주택 지붕재로 많이 사용

된 슬레이트 지붕들은 노후해 비산될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주시는 국도비 포함 예산 14억 840만 원을 투입해 건축물(주택·상점·축사)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를 철거할 예정이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위치를 희망합니다



영덕 청송 영양 청도 울릉



오도창 영양군수는 27일 오후 3시 영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되는 '영양남성의 용소병대장이취입식에 참석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27일 오후 2시 군청 미래도약실에서 열리는 'SNS홍보단 운동 청송 위촉식에 참석한다.



청송군, 3·1절 기념 보훈문화 확산 행사

청송군과 독립운동기념관은 지난 22·23일 이틀간 소헌공원에서 청송군민과 보훈단체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3·1절 기념 보훈문화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105주년을 맞는 3·1절과 함께 독립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함께 공감하고자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군민들이 대형태극기에 서명을 하는 행사 등을 통해 3·1절의 역사를 이해하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나라 정신을 확인해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했다.
윤병문 기자



영양MJF라이온스클럽 독거노인가정 물품 전달

국제라이온스협회 356-E(경북)지구 영양MJF라이온스클럽이 26일 어렵고 생활이 힘든 독거노인 15가정을 발굴해 사랑의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라이온스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써 쌀 30포대, 라면 15박스(총 200만 원 상당)를 읍면 독거가정에 직접 방문전달했다.
권윤홍 기자

김광열, 4-H 연합회 만나 '현장소통의 날' 개최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논의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난 22일 영덕군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하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영덕군 4-H 연합회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소통의 날'은 영덕군의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고 농업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청년농업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만큼, 청년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현실적으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영덕군 4-H 연합회 이동우 회장 등 임원 10여 명과 김광열 영덕군수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였고, 김군수는 참석한 임원 모두에게 의견을 묻고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4-H 연합회원들은 가족사육 제한구역 거리제한 완화, 사고 적과 및 수확 인력지원, 농기계임대센터 농기계 수요조사 결과 반영 등 농업현안과 관련된 건의사항을 제기하였고 이는 영덕군이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영덕군에 거주하는 젊은 청년층 전반이 가지는 고민을 함께 공유하였다. 관내



소아과 전문의 부족 문제, 긴급돌봄 공간 확장, 군지역 키즈카페 활성화 등이 언급되었다.

이에 김광열 영덕군수는 "경북도가 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그만큼 군에서도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 영덕북제 문화체험장 내 키즈카페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앞

으로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을 더 추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축산물 고곡 줄임됨터-영덕읍 구간에 포트홀(도로파임)이 많아 위험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자 김군수는 군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조

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덕군 4-H 연합회는 영덕군 농업기술센터의 지도를 받는 농업인 학습단체로 39세 이하 젊은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영덕군 농업발전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봉사 및 나눔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조여은 기자

농촌 여성, 집에서 빛나는 술 가양주 만들기 영양군농기센터 전통주연구회 교육 개강

영양군은 27일 관내 영양전통주연구회원 20명을 대상으로 전통 발효주 교육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다.

농촌 여성 전통주(발효주) 교육은 3월 19일까지 총 4회 16시간에 걸쳐 전통주(가양주) 제조 이론 및 실습으로 여강연 선생님의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우리 쌀(멥쌀)을 이용해 직접 손으로 빚고 발효시켜 우리 술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

행되며 우리 술의 역사와 전통주의 분류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 교육과 고두밥과 누룩을 비벼 넣어 가양주를 만들고 걸러서 청주를 만드는 실습 교육으로 진행된다.

조용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농촌여성들에게 건강한 전통 식생활을 보급하고 지속적인 쌀 소비 촉진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윤동 기자

청송군농기센터, 농기계 이론·실습교육 실시

청송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관내농업인 53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 '농기계 이론 및 실습교육'을 청송군농기계임대센터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업기계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기계사용이 미숙한 귀농·귀촌인 및 고령 농업인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작동원리 및 취급조작법, 점검정비 등 이론 및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진행됐다.

특히 임대해 주는 농기계 중 비교적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임대 횟수가 많은 트랙터, 농용굴삭기 등 2기종 위주로 집중 교육했으며 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해당 농기계 임대가 가능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기계 관련 재해는 다른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높아 사용자의 안전의식



제도가 꼭 필요하다"며 "농업인 소독향상과 안전한 영농활동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병문 기자

울릉군, 장흥 달맞이 민속 한마당 성료

5대 명절인 정월대보름을 맞아 해와 달이 가장 먼저 뜨는 울릉도서 열린 '장흥 달맞이 놀이마당'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6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장흥달맞이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주관으로 울릉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남한권 울릉군수, 공경식 울릉군의회 의장, 남진북 경북도의원을 비롯해 각급 기관단체장, 주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해 갑진년(甲辰年) 청룡(靑龍)의 해 지역의 안녕과 풍년, 대어를 기원하는 화합의 장을 이뤘다.

개막식과 함께 놀이 한마당으로 투호놀이, 윷놀이 등 전통놀이와 울릉도 아리랑, 독도리 난타팀의 난타 공연, 가수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로 관객들의 흥을 돋우며 행사의 백미를 더했다.

특히 이날 달집 점화와 함께 월출(月出)이 불가능하다는 기상예보에 따라 추진위 관계자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연출된 인공 보름달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자 관객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고, 저마다 한해의 풍요와 건강, 소망을 기원했다.

박춘환 장흥달맞이 추진위원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건강기원, 경제활력, 액운소멸 등 모두의 소



원성취로 다시 뛰는 울릉을 기원한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불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남한권 군수님과 축제 준비로 수고해 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열악한 기상과 환경을 극복하면서 준비해주신 박춘환 위원장과 위원회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속예술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깃드는 갑진년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윤환 기자

영덕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영덕군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해 2024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4·5등급 경유차 및 2009

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이다.

지난해와는 달리 출고 당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도 지원된다.
조여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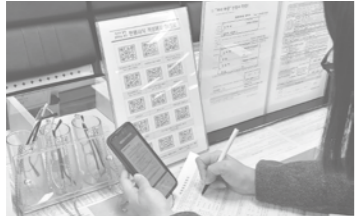
경산시의회
Gyeongsan City Council

시민이 행복한 경산시!! 경산시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영천 영주 봉화 고령 의성



최기문 영천시장은 27일 오전 9시부터 금호역세권 개발을 위해 양산시, 경산시 역세권 개발지 일대를 견학한다.



민원서식 작성 간편하게 영주시 QR코드 안내서비스

영주시는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해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QR코드를 활용해 민원서식 작성예시를 제공한다. 26일 밝혔다.

그동안 민원 서류를 작성할 때는 시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비치된 작성예시를 찾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이용이 많은 민원서식 14종의 작성예시를 QR코드로 제작해 영주시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했다.

QR코드로 제작된 민원 서식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전입, 재등록신고서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출생신고서 △사망신고서 △혼인신고서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여권 발급 신청서(성인용) △여권 발급 신청서(미성년자용)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여권 분실 신고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출입국 사실 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등이다.

전상기 기자



의성군, 봄철 산불방지 총력

의성군은 최근 높아져 가는 산불위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의성군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불자문관을 활용하여 산불전문진화대원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그 일환으로 매주 실시하는 산불진화 훈련과 안전 교육을 통해 실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조동 진화를 하고,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감시 활동 중 불법소각행위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 단속을 통해 주요 산불 원인인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산불 발생을 예방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산불예방 경각심 고취에 기여하고, 조동진화 조치를 통해 산불피해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박재성 기자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보상계획 열람·공고

내달 11일까지 열람·이의신청 접수 6월부터 보상 협의, 8월 착공 추진

영주시는 26일,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보상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보상계획 열람 공고는 국가산업단지 보상 절차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행정절차로, 사업시행자인 경상북도개발공사가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15일간 토지 및 지장물 등 재산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소유자의 확인을 받는 동시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한다.

현재 경북개발공사는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 인근(적서동 31-1)에 보상사무실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 중이다. 또한, 보상계획 내용은 국가산업단지 보상사무실 외에도 영주시청 기업지원실에서 열람 가능하며, 온라인(경상북도개발공사 및 영주시청 홈페이지)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누락 물건에 대한 이의신청 등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국가산업단지 보상사무실(☎054-634-6790~6791) 및 시청 기업지원실(☎054-639-6197~6198)로 문의하면 된다.

보상계획 열람이 끝나고 나면, 4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실시하며,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부터 토지 등 소유자와 본격적인 보상 협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영주시와 경북개발공사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보상 절차와 함께 실시할 계획인 병행 추진하는 등 관련 절차를 마춤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보상 협의 착수 후 8월에 국가산업단지 착공에 돌입할 계획이다.

박정락 영주시 기업지원실장은 "법적 기준 내에서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주민의 편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보상계획 확인 후 누락된 물건이 있다면 이의신청하시고, 열람 기

간이 지나서도 누락 물건에 대해 현장 확인 후 반영이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총사업비 2964억원을 투입해 적서동과 문수면 일대에 118만㎡(약 36만평) 규모 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8월 착공을 거쳐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국가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작·간접 고용 4700여명 등 1만3000여명의 인구증가 효과와 지역 내 연간 76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일으켜 인구소멸도시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상기 기자



해빙기 대비 봉화지역 급경사지·수해복구 현장 점검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 "조기경보시스템 유지관리 만전"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24일 해빙기를 맞아 급경사지 안전관리 및 수해복구 현장을 점검하고자 봉화군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관계자와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박현국 봉화군수를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 등이 현장점검에 함께 했다.

먼저 급경사지 관련 조기경보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달바위굴 현장을 방문해 운영체제 및 대응체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실제 대피 시 대피로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지, 대피 장소는 안전한 곳인지 확인·점검하고 달바위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작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봉성면 오그래미 마을을 방문해 작년 피해 현황과 복구사업 추진현황 등을 확인하고 자연재해 재발생 시 주민대피 계획과 연락체계 및 지원과 관련한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했다.

점검을 마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빙기를 맞아 급경사지 조기경보시스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상징후 시 선제적인 주민대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오그래미 수해복구 현장은 위기 전 위험구간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공사 시행에 따른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조기경보시스템의 상시작동에 만전을 기해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겠으며, 위기 전까지 위험한 구간의 수해복구를 우선으로 시행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봉화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봉화군, 선제적 가축방역 사각지역 공동방제단 운영

봉화군은 선제적 가축질병 차단방역을 위해 소규모 가축사육농가와 도촌 산란계 밀집단지 등 방역취약지역에 집중소독을 위한 공동방제단을 운영한다.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방역이 소홀한 소규모 축산농가와 취약지역에 대해 축협의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소독지원을 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는 사업이다.

군은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해 올해 2억 1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안동봉화축협에 위탁 운영을 맡기고 축협은 4개의 방제단을 편성해 올해 12월 말까지 소규모 농가 290호와 도촌 산란계 밀집단지에 24회 순회 소독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소독지원은 △소 15두 미만 △염소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오리 2000수 미만 △닭 500수 이상 3000수 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그 밖에 도촌 산란계밀집단지 등 방역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소독을 실시해 빈틈없는 소독으로 가축전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동절기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전국적으로 31건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와 2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고, 관내에서도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77건의 ASF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공동방제단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전상기 기자

의성군, 의성형 로컬 셀러 양성교육 참여자 모집

의성군은 '2024 의성형 로컬 셀러 양성교육'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관내 농업인 및 창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는 3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의성군 농업기술센터 정보교육장에서 매주 화요일 총 10회 교육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언택트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맞춰 이커머스를 활용한 농업인, 창업인의 판매 역량 제고 및 소득 증대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커머스 스토어 개설 △SNS 활용한 상품광고 △스키워드 추천 및 배너 등록 등으로 구성된다.

3월 7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관내 농업인 및 청년 창업인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군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박재성 기자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 창업농교육 개강식 열어

봉화군은 지난 24일 스마트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 창업농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

봉화군은 민선 8기 박현국 봉화군수의 대표적 공약으로 농업의 첨단산업화로 열어가자는 지방시대라는 도정목표와 발맞춰 '봉화군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업은 봉화의 근간이자 미래라고 강조하는 박현국 군수는 기존 농업인의 경험, 지식에 의존했던 농업에서 첨단 ICT기술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봉화농업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는 각

오로 농업정책을 이끌고 있다.

봉화군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딸기, 화훼, 커피나무의 신기술 도입을 위한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건립사업과 청년농 지역 유입 및 지역농업인들의 스마트팜 진입의 장을 마련하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봉화 스마트팜 창업농교육은 기존의 경종농업에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한 스마트농업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으로서 총 20개월 동안 교육이 진행되며, 기초 이론교육 8개



월과 토마토, 딸기재배를 위한 실습 심화교육 12개월로 운영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스마트농업이라는 시대적 변화와 봉화군 스마트농업을 이끌어가는 전문인 양성을 위한 이번 교육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갑진년 정월대보름 맞이 성주군 초전면 문화행사

성주군 초전면은 26일 갑진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며 민민 화합과 풍년 농사를 기원했다.

먼저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큰울림풍물패(회장 송대근)의 지신밟기는 초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해 흥을 돋우고 파출소·농협 등 관내 주요 기관을 방문하며 건강과 안녕을 빌어주었다.

지신밟기를 마친 뒤에는 초전면 이장협의회 회원들과 초전농협 임직원 등 60여명이 모여 대풍을 기원하는 율놀이 대회가 열려 덕담을 주고 받으며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고강희 초전면장은 "지신밟기 행사를 통해 2024 갑진년 민민들이 소통과 화합을 이루고 건강하고 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월대보름 행사를 계기로 지역 곳곳에 살아 숨 쉬는 옛 전통을 되살리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초전면에서는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마을 곳곳에서 부녀회나 노인회 주관으로 율놀이 행사 등 다채로운 전통행사가 열리고 있다.



문경시 청소년 운영위원 진로페험 프로그램 참여

문경시는 지난 24일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바리스타, 진로직업 과정 등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의거해 청소년활동 활성화와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다.

2024년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월 위원 공개모집을 통해 19명을 선발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고등부 1명, 중등부 1명), 기획팀과 홍보팀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진로체험은 지난 1월 정기회의를 통해 청소년운영위원회 중점 기획 활동으로 가결되어 2월에는 시범체험으로 참여하고자 기획됐다. 기획 첫 단계로 자신에게 흥미롭고 적합한 직업을 찾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여 '진로직업 과정'이 선정되었고, 바리스타 과정에 관심이 있는 위원들이 많아 '바리스타 과정'을 포함하여 2개 체험으로 진행됐다.

올해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진로 체험을 통해 멘토링 활동을 기획·운영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참여할 계획이다. 문경시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는 많은 청소년이 진로체험에 참여하고 유익한 진로탐색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동수 기자

'메이드 인 구미 농산물' 농촌 활력 선도한다

지역 특성 농산물 발굴 결실 맺어 레드향·멜론·딸기 매출 대박 행진

구미시 농산물이 신바람을 일으키며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농가들은 레드향, 천혜향, 멜론, 딸기 등 특화 작물 재배로 높은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시는 농가 소득 증가와 함께 산업도시 이미지에서 벗어나 우수 농특산물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한다.

■ 구미에서도 레드향, 천혜향 나온다

지난 1월 구미시 옥성면 선사인 농장에서 생산된 레드향이 설 명절 대목을 맞아 2주 만에 완판되는 대박을 기록했다.

흔히 레드향, 천혜향 등의 만감류는 제주도에서만 생산된다고 생각하지만, 뜻밖의 지역, 이곳 구미에서 생산된다고 하면 다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더군다나 제주산에 비해 당도가 더 높고 산도가 낮아 맛을 본 사람들이 명절 선물로 대량 주문하는 등 그야말로 빅히트를 쳤다.

선사인 농장은 구미시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을 통해 만감류를 재배하기 시작했으며, 끊임없는 재배 기술 연구와 노력으로 구미시 만감류 재배를 선도하고 있다.

현재 구미시에는 옥성면, 고아읍에서 4농가가 약 1.2ha 면적에 만감류를 재배하고 있으며, 시는 앞으로 다양한 보조사업을 통해 만감류 재배를 확대할 계획이다.

■ '달콤함의 끝판왕' 구미 멜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부드럽고 달콤한 맛의 멜론은 구미시 대표농산물 중 하나로 꼽힌다.

구미시 농특산물 온라인쇼핑몰 구미팍의 2년 연속 매출 1위를 기록한 품목으로 지난해 추석에는 선물용 세트가 사고 싶어도 물건이 없어 못 살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낙동강 유역의 사질양토와 지하 150m 암반수



에서 재배해 맛과 향이 좋은 우수한 품질의 멜론이 생산되고 있으며, 특히 칸탈로프 멜론도 생산되는 농장을 본다.

칸탈로프 멜론은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제품으로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혈관 청소부로 알려져 있으나, 재배가 어려워 전국적으로도 생산 농가가 많지 않은 품종이다.

도개면 성서기 농가는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거쳐 재배 노하우를 쌓아 좋은 품질의 칸탈로프 멜론을 생산 중이며, 이를 활용해 개발된 멜론 빵은 구미시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금상을 받는 등 구미시 특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고아읍, 산동읍, 장천면, 도개면 103농가가 약 56.2ha 면적에 재배하고 있으며, 시는 대표농

산물의 생산을 확대하고 품질향상을 위해 특화된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등 농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새콤달콤한 구미 딸기

지난해 4월 개장한 구미시 로컬푸드 직매장 금오산점의 최근 판매 1위 품목은 단연 딸기이다. 과일 생산이 많지 않은 겨울철 새콤달콤 새빨간 딸기는 어린이가 좋아하는 집이면 빠지지 않고 구매하는 품목 중 하나로 구미에서 당일 수확한 신선한 딸기를 구미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어 나날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재배 농가 중 일부는 GAP 인증을 받은 우수한 품질의 딸기를 학교급식에 납품하고 딸기 종묘도

직접 생산하는 등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딸기재배 농가가 늘어나 현재 34농가가 약 6.6ha 면적에 재배 중이며, 시는 내제해형하우스 구축, 고설재배 시설, 다점보온커튼 지원 등 다양한 보조사업과 더불어 올해 원예용 육묘상토 지원사업을 신설해 농가 부담을 덜어주는 등 딸기 재배 농가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강호 구미시장은 "끊임없는 발전으로 구미의 토착 특산물로 자리매김하고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농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더욱 많은 사람이 구미의 맛과 향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은진 기자

안동시, 바이오 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동 신청 협약

포항 연구개발 역량 연계

안동시는 26일 경북도, 포항시와 도청 안민관 K창에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사업 공동 신청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정부는 2022년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첨단전략기술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3개 분야를 지정했으며, 2023년 5월, 바이오 분야를 추가 지정했다. 같은 해 7월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3개 분야 7개 특화단지 선정과 함께,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계획을 발표하고 12월,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계획을 공고했다.

안동은 바이오 백신 산업의 수도로서, 바이오 분야 R&D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안동지원센터부터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백신 후보 물질 발굴), 백신

상용화기술지원센터(후보물질비임상시험),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임상시료생산) 등 백신 생산 지원 기반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북바이오 1, 2차 산업단지 내 SK바이오사이언스, SK플라즈마, 유한생물건강, 한국콜마 등 바이오 의약품 분야 선도기업들이 연구 및 생산시설을 구축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는 mRNA, 차세대 페럼균 백신 생산을 위한 신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며, 교통 측면에서도 KTX 중앙선개통 및 대국경북신공항 개항 예정(2030년)으로 접근성이 개선되는 등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우수한 인프라뿐만 아니라 국립안동대학교의 글로벌 대학 30선정과 함께 LINC3.0 사업단 운영으로 산학연계를 통한 백신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백신전문인력육성지원센터 내 WHO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 캠퍼스 유치로 이제 안동은 글로벌 백신산업에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

안동시의 '백신 개발에서 생산까지 이뤄지는 전주기 지원 시스템'에 포항시의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방사광가속기연구소, 포항공과대학 등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인프라와 연구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면 특화단지 신청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는 구미 반도체,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에 이어 경북 바이오백신 산업 특화단지를 유치해 3대 국가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특화단지 공동신청을 계기로 안동시와 포항시 간 바이오 분야 산업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되길 기대하며, 특화단지 유치를 통해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를 글로벌 백신 생산 기지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최준길 기자

이강덕 포항시장, 수소 산업 육성 재결심

이강덕 포항시장이 26일 지역의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서울에 소재한 수소융합얼라이언스(이하 H2KOREA)를 방문했다.

이날 이 시장은 문재도 H2KOREA 회장을 만나 포항시가 여정 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수소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포항시의 수소 산업 역량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한편 저탄소 수소경제 사회 조기 실현을 위해 포항시와 H2KOREA가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H2KOREA는 지난 2021년 '수소산업 진흥기반'으로 지정돼 수소전문기업 87개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소기업 성장 지원, 정부-산업계 간 교류활동 등 수소 산업의 진흥과 국제협력·정보교류를 전담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인 수소에너지에 있다"며, "포항이 가진 우수한 인프라와 차별화된 수소산업 육성 정책으로 에너지 전환의 모범 사례가 될 수도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2050 친환경수소경제 허브도시'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수소 기업 70개 유치, 매출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수소 정책을 역점 추진 중에 있다.

시는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내 구축되는 부품·소재 성능평가, 연료전지 실증센터와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등 입주 기업에 유리한 인프라와 포스텍,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포항테크노파크 등 우수한 인력을 보유해 타 도시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수소전기차·수소버스 보급, 수소배관망·수소충전소, 수소도시 정보관 구축 등 포항만의 수소도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면서 도시경제와 시민 생활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수소 도시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산시,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 집중

응급·공공 의료기관 등 순차 방문 비상 진료체계 유지 당부 전해



경산시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 대응으로 보건 의료 자원 위기 관리 경보가 지난 23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지역 의료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응급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경산시의사회를 순차적으로 방문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산시에 따르면 안병숙 경산시보건소장은 지난 22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역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산중앙병원 구일권 원장, 세명병원 최영욱 이사장을 직접 만나 응급실의 24시간 운영 및 비상 진료체계 유지와 시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뒤이어 공공보건의료기관인 경북권역재활병

원의 김철현 원장을 만나 개원의 집단휴진 발생 시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공휴일 비상 진료계획 수립에 따라 보건소 등과 협력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체계에 돌입할 수 있게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지역의 보건의료단체인 경산시의사회를 방문한 안병숙 보건소장은 "응급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개원의 집단휴진 등이 발생하면 지역의료공백이 발생해 시민의 불안감이 증폭될 수 있는 만큼 경산시의사회원 여러분이 시민의 가장 가까운 건강지킴이로서 언제나 시민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말했다.

한편, 경산시는 2024년 1분기 보건 의료협의체를 이룬 시일 내 개최해 지역의 보건 의료단체와 지역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신경운 기자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2025

A P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에서

과거의 역사를
아우르고



현재의
경험을 나누고

미래의 꿈을
실현합니다

